

임실군 옛 물길 되살려 도인천 1·2단계 생태복원

1단계 임실 임실천~성수 도인천 1.16km 구간 생태 갯벌 및 보행로 공정률 37%

임실군이 옛 물길을 되살려 수변환경을 복원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인공구조물(콘크리트 호안, 낙차보 등)을 생태호안과 자연형 여수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하천 정비로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종적 연결성을 회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구간은 총 3.3km로, 1단계(임실천 합류지점~성수면 도인천교)와 2단계(성수면 도인천교~성수면 도인천저수

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구간 내에는 생태여울, 생태수로, 생태호안, 생태체형 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성수면 도인천교에서 임실천 합류지점에 이르는 1단계 구간(L=1.16km)은 현재 공정률 37%를 보이며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군은 오는 5월 중 1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이어 6월 2차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6월 1단계 사업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은 성수면 도인천교에서 도인천저수지(L=2.14km)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9억원(도비 29.5억, 군

비 29.5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은 하천선형 직강화(직선화)와 보·낙차공 등으로 단절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기설제방 보강을 통해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수·환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7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승민 기자

전남도 전자파 평가·인증 인프라 갖춘다

전국 첫 자율주행차, 영광 대마전기차산업단에 2029년까지...미래차 안전인증 허브



전라남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전자파 평가·인증 인프라를 전국 최초로 영광에 갖추게 돼 미래차 안전인증 허브로 우뚝 설 전망이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모빌리티 전자파안전시험 시험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총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영광 대마전기차산업단지에 실차·핵심부품 기반 전자파안전시험 시험·평가센터 등을 구축, 2029년 전자파안전시험·평가 의무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자파안전시험은 밀폐된 금속 공간에서, 도로 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복잡한 전파 환경을 실제와 같이 구현하는 최첨단 시험시설이다.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첨단 센서와 통신장비가 밀집된 자율주행차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은 차량의 판단 오류나 제어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극한의 전파 환경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자파 평가·인증 인프라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2029년 9월부터 국제 기준(UN Regulation)에 따라 전자파안전시험 시험·평가가 의무화되지만 국내 시험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한다. 센터가 완성되면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과 글로벌 선차 업체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확보해 국내의 자동차 기업이 원스톱으로 시험·평가·인증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2024년 대마전기차산업단에 구축된 전자파 적합성 인증센터(현대·기아차 전자파성능평가 시험소 지

정)에 이어 이번 전자파안전시험 평가·인증 인프라까지 조성되면, 영광은 미래 모빌리티 전자파 종합 시험·평가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해당 인프라는 광주 완성차 산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첨단 전자장비의 집합체인 자율주행차의 전자파 안전성 검증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국내 최초 실차 기반 전자파안전시험 구축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을 책임지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도약하고, 관련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은 3일(수) 아로마티카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의 비교우위 난대 산림자원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활용해 케이(K)-뷰티 화장품 개발과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도 등 남부 해안지역에 자생하는 생달나무의 에센셜오일 등을 활용한 향장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산 산림원료 활용 제품화 및 산업화 ▲산림 유래 천연오일 화장품 적용 연구 ▲원료 대량생산과 국산화·단기 안정화 ▲지속 가능한 원료 발굴 등을 중심으로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박종은 기자

완주오면 장학금 드려요 대학가 전입 혜택 홍보

우석대서 홍보...1년에 10만 원 최대 30만 원 지원

완주군이 우석대학교를 찾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주요 전입 혜택을 안내하며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홍보 활동을 나섰다.

이번 활동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며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전입 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지원 사업은 완주군으로 주소를 옮긴 관내 대학생에게 1년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전입 장려 지원금으로 세대당 5만 원 상당의 로컬푸드 꾸러미와 종량제 봉투 10매를 추가로 제공해 실질적

인 생활 혜택을 준다.

안내 부스에서는 전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을 함께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심미정 과장은 "전입 학생 생활안정장학금사업은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번 안내활동을 시작으로 관내 다른 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전입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이 신혼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할 가정을 돕고자 관내 예비·

신혼부부 여성을 대상으로 품진 항체검사와 예방접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품진 예방접종지원 사업은 관내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건소에서 품진 항체검사(IgM, IgG)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와 함께가 없는 경우에는 홍역·볼거리·풍진(MMR) 예방접종을 1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비롯해 혼인 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풍진항체 검사 결과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 자금 551억 원 융자 지원

정읍시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총 551억 3600만원 규모의 '사료 구매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현재 사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대두·밀 등은 미국과 남미 등에서 수입돼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적 상황이다.

하지만 불안한 중동 정세에 따른 고환율과 고유가의 영향으로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등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

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한우·육우·젖소·돼지·닭·오리·사슴·말·양·염소·꿀벌 등 다양한 축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료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총 277개 농가가 신청했다. 시는 농가별 신청 금액, 사육 두수, 기존 대출 잔액, 지원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 통보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은 농가가 아닌 지정된 사료 공급 업체로 직접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역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저금리 사료 자금 지원이 농가의 숨통을 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가 2025년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부 기한을 연장 지원한다.

이영민 기자

장수 웰니스 관광지명소 '치유의숲' 재개장

숲테라피·명상·맨발걷기 등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장수군은 천천면 와룡자연휴양림에 있는 치유의숲이 재개장에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은 2025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보다 다채롭고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갖추고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그린장수 치유의숲은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 힐링 공간으로 운영되며, 자연 속에서의 치유 효과를 극대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속 환경을 활용해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숲테라피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이완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상 테라피, 발바닥 자극을 통해 신체 활력을 높이는 황도길 맨발걷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도 치유의숲을 중심으로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



대 운영하고, 웰니스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석원 산림과장은 "치유의숲을 통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휴식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치유 공간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장수 치유의숲은 자연과 치유가 결합된 특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서주 기자

캐나다 셰리던 대학 총장단 순천 방문했다!



순천시시는 지난 1일 글로벌 히트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감독을 배출한 캐나다 셰리던 대학(Sheridan College) 총장단이 순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디 구베이어(Cindy Gouveia) 총장과 라잔 산두(Rajan Sandhu) 부총장, 이상철 한국 대표 등 총장단 일행은 애니메이션 산업과 교육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떠올렸으며, 그중 순천에 대한 관심을 먼저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총장단 일

행을 맞이하며 정원 워케이션과 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등 순천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소개했다.

신디 구베이어 총장은 "국가정원이라는 신디 구베이어가 주는 힘이 크다. 유명한 창작 스튜디오보다 뛰어난 현장 교육실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력을 함양하는 일이다. 학생들과 다시 순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순천시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

쳤다.

순천시를 비롯해 순천대학교, 로커스와 함께 상호 유학생 파견, 공동 프로젝트 제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가는 데 유연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단 일행은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자리 잡은 로커스 스튜디오 현장까지 둘러보며 순천시 엔터테인먼트 로커스와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홍성호 대표는 스튜디오를 소개하며 순천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과 대표작, 기업 운영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셰리던 대학과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 인재 교류,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순천시는 셰리던 대학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상호 교육생 및 교수 파견 등 실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해 글로벌 K-콘텐츠산업 도시로서의 비전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박종은 기자

단돈 1만원에 올리는 도심 속 예식 해법 찾는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 공간이 실속과 의미를 모두 잡으려는 예비부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는 지난해부터 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 장소로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다. 이용료는 야외광장 등 실외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는 2시간당 1만원(생난방비 별도)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예식 공간에는 주자장, 화장실, 전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꽃장식과 테이블 등 예식 소품은 신청자

가 직접 준비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또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국수 1인 5000원) 제공으로 피로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외 케이터링도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췄다. 예식 신청은 예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하루 1회 예약제로 운영해 여유로운 예식 진행을 지원한다.

예약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공유누리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안전과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시청 '빛의 정원'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총 8팀이 100~400명 규모의 예식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공간을 개방해 더 많은 예비부부가 특별한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전남도민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후생관과 무등산 생태탐방원 등에서도 공공예식 지원이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예식 활성화는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은 기자